

우리는 어디에서 있어야 하는가

논술을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들께

글_ 박용성 여수여고 교사, 《교과서와 함께 구술·논술 뛰어넘기》 저자

이 땅에서 '국어 교사'로 한 길을 가는 선생님들과 정 말 가슴에 맺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1세기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20세기의 교실 풍경이 달라지리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 국어 수업 또한 여전하리라는 우울한 예감이 저를 사로잡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국어 교사를 옥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논술'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논술 고사가 치러지면서 이 땅의 국어 교사라면 누구나 당혹스러운 경험을 한 번쯤은 하셨을 것입니다. 하일라이트니 뭐니 하는 참고서만 보며 지내온 우리에게 논술 고사는 눈 뒤집힐 사건이었습니다. 저의 경우만 해도 논술 문제를 처음 받아본 순간에 받은 충격은 굉장했습니다. 그 때는 학교 밖에 있을 때라 그것이 피부에 직접 와 닿지는 않았지만, 자연계열 논제가 주었던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논술은 각각의 교과 수업에서 배경 지식을 익히고, 국어 교사는 글쓰기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윤리, 과학, 사회, 음악, 미술 등 모든 교과 교사가 폭넓은 독서 지도를 통해 배경 지식을 쌓아 주고, 거기에 국어 교사가 최종적으로 결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이 어디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다른 교과 선생님들에게 '논술 지도 같이 합시다' 하면 이야기 꺼낸 사람이 오히려 머쓱해질 지경입니다. 따지고 말고 할 것 없이, 국어 교사가 논술을 꺼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즐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생각부터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

다.

논술 하면 분명히 입시가 떠오릅니다만, 논술은 입시만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논술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자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중국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펼럭이자 한 달 뒤에 미국 뉴욕에 폭풍이 몰아쳤다는 말—아마 들어 보셨을 겁니다. 처음 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결과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학교 교육에서 논술이 바로 한 마리의 나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논술을 배우면서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나비 효과'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과 크기를 재는 학교에서 질과 의미를 생각하는 학교로의 변화·발전을 이끌 전위(前衛)가 바로 논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척박한 풍토에서 논술 가르치는 것도 제법 의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논술 교육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체계적으로 논술을 지도하고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논술에 손도 못 대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논술 교육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뒷짐지고 있는 대학 당국에 그 원인이 있지만, 이런 문제점을 정면으로 겨안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설 학원에만 맡기면서 방관하는 우리 국어 교사들에게도 책임의 일단은 있습니다.

논술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단지 원고지 쓰거나 서론이니 본론이니 결론이니 하는 글의 구성 방법 등의 형식에 매달려 가지고는 논술을 할 수 없

어쩡니까? 아이들이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데, 달리 무슨 방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를 뛰어넘어 '무엇을' 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학교 단위로, 지역 단위로 이 고민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논술도 살고 아이들도 삽니다.

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방법에 있지 않고 '무엇을' 채울 것인가 하는 내용에 있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그런데도 내용을 채우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는, 참고서 하나 선택해 주어진 논제에 따라 글을 쓰게 한 뒤 아이들이 쓴 글을 첨삭하는 일만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아이들도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점은 대충 넘어가고, 맞춤법이니 띄어쓰기니 비문이니 하면서 아이들의 글을 잡도리하고 맙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강평했듯이, 논술은 '참고서 뛰어넘기' 인데 우리는 참고서에 매달려 있습니다. 정답(?)만을 가르치는 참고서의 포로 노릇을 하지 말라는 것이 논술의 취지인데, 우리는 논술마저 참고서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왜 국어 선생이 논술 지도를 맡아야 하는가" 하고 받아치면서 몸 숨길 공간을 스스로 마련합니다. 내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다소 도전적인 책 제목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참고서를 뛰어넘어야 논술이 삽니다. 교사가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그 세계관을 드러낼 수 있어야, 그 교사를 믿고서 아이들은 세계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논술 교육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학문이 처음부터 오늘날처럼 인문·사회·자연 과학 등으로 나뉘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인간의 지식이 늘어나면서 오늘날과 같이 여러 분야로 분화되고 발전한 것이 현대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문에는 공통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의 공통적인 흐름 속에서 얻어진 통합적인 지식으로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논술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논술 교육에서 필요한 통합 교과적 사고입니다.

아시다시피, 통합 교과는 단지 교과서를 합쳤다는 말이 아니라 각 교과에 공통으로 흐르는 맥을 짚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통합 교과적 사고를 할 만한 배경 지식이 있습니까? 통합 교과 방식의 논술 지도

를 할 수 있는 자기 준비가 얼마나 탄탄한지 겸허하게 자문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알면서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알지 못하는 지적 편향성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통합 교과적 사고는 불가능합니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사회과학적 통찰력, 그리고 자연과학적 분석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우리보다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 교과에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단편적인 지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막상 이를 활용한 논제를 제시하면 할 말을 못하고 마는 것이 아이들의 현주소입니다. 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논리적 주장으로 이어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식을 꿰어낼 만한 통합 교과적 사고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국어 교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도에서 주최한 독서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쓴 독서 감상문을 채점하다가 문득 옆에 있는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 책들 읽은 적이 있나?" 그랬더니 그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디 책을 다 읽고 한답니까? 감으로 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 현장의 논술 교육도 이렇게 막연한 '감'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국어 교사들 잘못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논술 교육을 받은 적도, 현장에서 체계적인 연수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쩡니까? 아이들이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데, 달리 무슨 방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스스로 '어떻게' 를 뛰어넘어 '무엇을' 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학교 단위로, 지역 단위로 이 고민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논술도 살고 아이들도 삽니다.

저의 부끄러움을 돌아보며 아프게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